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사회적연대경제 기업·단체 한자리에	바르셀로나
산업·경제	2	중소기업이 개발한 로봇기술 제품화 지원	도쿄
	4	클라우드 펀딩으로 시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런던
	7	STEM재단 설립·ICT메카 조성 등 혁신 전략 수립	뉴사우스웨일즈
사회·복지	9	숙소·식당 확충 등 노숙인 흑한기 대책 시행	파리
환경·안전	11	프랑스 최초로 차량통행제한구역 지정	파리
도시교통	13	연말 교통사고 줄이기 '일몰·어둠' 계획 진행	뉴욕
뉴스인사이드	15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사회적연대경제 기업·단체 한자리에

‘제2회 박람회’ 개최...식료품·지식·의료 분야 등 60여 곳 참여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산업·경제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쇼핑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연대경제 기업과 단체들을 알리고,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60여 개의 사회적연대경제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제2회 ‘책임감 있는 소비, 사회적연대경제 박람회’를 카탈루냐 광장에서 개최
- 주요 내용
 - 박람회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카탈루냐 광장에서 열림.
 - 박람회 기간 사회적연대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
 - 박람회에는 식료품, 의류, 문화 및 지식, 통신, 윤리적 금융, 건강과 의료 분야 등의 단체, 기업, 프로젝트가 참여
 - 참여 프로젝트들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 자리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박람회 기간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오락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제2회 ‘책임감 있는 소비, 사회적연대경제 박람회’ 포스터

<http://www.barcelonactiva.cat/barcelonactiva/es/novedades-y-prensa/novetats/2016/11/28/noticia122317.jsp>

진광선 통신원, sunnyce@hanmail.net

산업·경제

중소기업이 개발한 로봇기술 제품화 지원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 일본 도립 도쿄산업기술연구센터(東京都立産業技術研究センター)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로봇기술을 제품화하고, 이를 통해 로봇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로봇산업 활성화 사업(ロボット産業活性化事業)’을 시행
- 개요
 - 이 사업은 ‘안내, 산업, 점검, 보호’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로봇을 실용화하고, 제품화된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가 사업화되도록 지원
 - 로봇의 실용화에 필요한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지원
 -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로봇산업 진출을 지원
- 주요 내용
 - 기술개발
 - 기술연구센터와 중소기업,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로봇 관련 제품 개발 및 기술개발을 시행
 -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나 제조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을 모집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추진
 - 중소기업이 로봇을 개발할 때 기술연구센터가 보유한 기술을 제공
 - 사업화 지원
 - 로봇의 사업화를 꾀하는 중소기업 등에 공동개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4월 ‘도쿄 로봇산업 지원 플라자(東京ロボット産業支援プラザ)’를 개장
 - 로봇산업 분야의 교류 도모를 위해 로봇 기술자와 경영인 등의 네트워크 구축
 - 로봇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대한 조언을 제공
 - 새로 개발한 제품을 국내외 박람회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작·평가 지원
 - 로봇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필요한 초대형 3D 프린터 등의 장비 도입
 - 중소기업이 제작한 로봇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도록 상점, 거실, 사무실을 모델로 한 실험공간 제공
- 안전 인증에 관한 기술 지원
 -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로봇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
 - 경사로 주행 시험장치, 복합 환경진동시험기, 전파암실 등을 설치해 안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각종 시험을 지원
 - 생활지원 로봇의 국제안전규격에 관한 정보 제공
- 로봇산업 인재 육성
 - 중소기업이 도입한 로봇시스템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인재와 로봇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 로봇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로봇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로봇 개발자를 위한 무료 강습회 등을 실시



도쿄 로봇산업 지원 플라자의 각종 안전시험 장비

<https://tiri-robot.jp/plaza/>

<http://www.iri-tokyo.jp/gaiyo/soshiki/robot/activation.html>

http://www.iri-tokyo.jp/gaiyo/soshiki/robot/28_kobo_thema.html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영국 런던市 / 산업·경제

- 영국 런던市는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지역의 재생이나 발전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웹 사이트에 제안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평가로 선정된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스페이스 하이브(Spacehive)’와 협업으로 시행
- 개요
 - 이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스페이스 하이브가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수행하고, 런던 시장이 각 펀딩에 직접 지지하고 후원함.
 - 2015년 첫 모금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7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5,916명의 시민이 1,783,777파운드(약 26억 5천만 원)를 후원함.



스페이스 하이브의 모금 콘셉트 이미지

- 주요 내용
 -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
 - 아이디어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함.
 - 지역사회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함.
 - 웹 사이트에 올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함.
 - 런던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재정 후원을 주요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가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영리추구가 주요 목적인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음.

- 선정된 프로젝트 지원
 - 선정된 프로젝트에 런던 시장이 최대 2만 파운드(3천만 원)를 후원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민들의 모금이 이루어짐.
 - 지난 두 시즌 동안 런던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37개의 프로젝트에 60만 파운드(9억 원)를 후원

–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

- 센터 포인트 카페(Centrepont Cafe, Soho) 프로젝트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호지역의 젊은 노숙인(16세~25세)을 위한 주말 소셜 카페를 오픈
 - 이 카페에서 소호지역의 젊은 노숙인들에게 취업 교육과 일할 기회를 제공



센터 포인트 카페의 내부

- 새로운 예술 창조 공간 조성 프로젝트
 - 낙후되고 버려져 있던 지역사회를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고 지역 예술가들이 작업한 벽화 등의 작품을 통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월담 포레스트 및 우드 스트리트 지역에 그려진 벽화

- 굿 푸드(Good Food) 프로젝트
 - 지역사회에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할겠다는 목적으로 추진
 - 지역의 빈 점포들을 활용하여 식료품 가게와 식당을 열어 지역주민에게 지역에서 난 제철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요리 교육을 시행



캐트포드 지역의 굿 푸드(Good Food) 상점

<https://www.spacehive.com/movement/mayoroflondon/about>

<https://www.london.gov.uk/what-we-do/regeneration/funding-opportunities/crowdfunding-programme>

<http://www.curateanddisplay.co.uk/functionandform-03-dean-street-caf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STEM재단 설립·ICT메카 조성 등 혁신 전략 수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산업·경제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혁신 경제가 미래의 소득 증가, 고용 창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동력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혁신뿐만 아니라 기업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NSW 혁신 전략(NSW Innovation Strategy)’을 수립
- 혁신 전략의 실행 영역 및 방안
 - 혁신 주도자로서의 정부
 - 기업 경영에 좋은 환경의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 영역의 규제 장벽 최소화
 - 혁신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혁신 안내 서비스(NSW Innovation Concierge)’ 웹 사이트 구축
 - 혁신 아이디어가 규제로 상업화되기 어려우면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시켜 실험하고 시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 모래함(Regulatory Sandboxes)’ 제도를 신설
 - 연구와 개발 촉진
 -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주정부가 수행
 - 2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최대 1만 5천 호주달러(1천5백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 바우처(TechVoucher Scheme)’ 제도를 확대 시행
 - ‘대학 연계(Universities Connec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학교와 정부 간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할 계획
 - 미래를 위한 기술교육
 - 앞으로 10~15년 후 현재 직업의 40%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
 - 향후 고용 성장을 이끌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는 ‘STEM 재단(NSW STEM Foundation)’을 설립할 계획

- ‘미래기술(NSW Future Skills)’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STEM 분야 과목을 많이 수강하도록 지원하고 아시안 언어 학습도 지원할 계획
- NSW주를 기업의 근거지로 조성
 - NSW주는 호주에서 ICT 서비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며, 이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임.
 - 시드니시는 이미 핀테크(Fintech), 어그테크(AgTech),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 주정부는 호주의 혁신 수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시드니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혁신 거점들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
- 기타 사항
 - 주정부는 ‘혁신 및 규제개혁부 산하에 ‘혁신 위원회’를 설립하여 ‘혁신 전략’ 실행을 모니터링할 계획

<https://www.nsw.gov.au/news/nsw-government-launches-innovation-strategy>

https://www.innovation.nsw.gov.au/sites/default/files/NSW_Government_Innovation_Strategy_Document.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

사회·복지

숙소·식당 확충 등 노숙인 혹한기 대책 시행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프랑스 정부와 함께 노숙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혹한기 대책(Grand Froid à Paris)’을 시행
- 배경
 - 혹한기 대책은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파리의 투쟁’이라는 서약에 따라 시행 되는 106가지 정책 중 하나임.
 - 서약에는 파리지, 파리 경시청, 파리 공공의료단체, 파리 공공원조단체, 철도청, 사회복지처,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 등이 동참
 - 서약의 주요 내용
 - 노숙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상황을 계속 추적
 - 노숙인들의 식사, 보건, 위생, 주거 등의 충족에 집중하며, 특히 가족 단위로 노숙하거나 임신 여성, 청소년 등은 특별히 관리
 - 노숙인들이 사회보장, 건강, 주거, 일자리, 문화, 스포츠 등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속해서 사회에 잘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
- 혹한기 대책의 주요 내용
 - 숙소 대책
 - 파리는 노숙인들이 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1,100여 개 설치
 - 작년의 경우 1,100여 개의 숙소도 부족
 - 시는 16개의 체육관을 밤에 개방하고, 파리 사회운동단체의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숙소를 추가로 활용
 - 숙소에서는 잠자리 외에 점심, 저녁, 샤워시설도 제공되며, 토요일에는 일요일 식사까지 미리 준비·제공
 - 2016년 11월부터 국방부, 우체국, 철도청, 국영 전기회사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에 1,700여 개의 숙소를 마련

- 식사 대책
 - 파리는 사회복지 식당을 계속해서 짓고 있으며, 2016년 11월 파리 12구에 아홉 번째 식당이 준공됨.
 - 이 식당에서는 매일 1,500여 명분의 음식을 제공
- 흑한기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숙소와 식당에 관한 정보 제공
 -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연락 가능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연락처 기재
- 기타 대책
 - 파리는 노숙인들이 흑한기 이외에도 지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인 ESI(Espace Solidarité Insertion, 사회편입공간)와 PSA(Permanences sociales d'accueil, 지속적 사회편입)를 설치
 -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사이트에 플랫폼을 구축

<http://www.paris.fr/actualites/paris-declenche-son-plan-hiver-pour-les-sans-abri-3148>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환경·안전

프랑스 최초로 차량통행제한구역 지정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프랑스 파리市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대기오염 유발 정도가 높은 차량과 프랑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파리 시내 통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으며, 2016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차량통행제한구역(Zone à Circulation Restreinte, ZCR)’을 지정
- 배경
 - 파리가 2015년 발표한 대기오염방지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이 아닌 차량의 파리 시내 통행을 금지함.
 - 1차적으로 2001년 이전에 생산된 버스와 대형 트럭 중 Euro 3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통행을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함.
 - 2차적으로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개인 차량과 트럭 중 Euro 2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통행을 2016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금지함.
 - Euro 2 기준에 미달하는 승용차와 트럭, Euro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차는 주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ZCR 구역으로 지정된 파리 시내의 진입을 금지함.
- 주요 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라벨인 ‘크리테르(Crit’Air)’ 스티커 부착
 - ZCR로 지정된 파리 시내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도 증명서 (Certificat qualité de l’Air)인 크리테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함.
 - 크리테르 등급에 따라 파리 시내에서 주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차량 운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행은 금지함.
 - 파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오염이 심한 개인차량을 처분하면 각종 대중교통의 혜택 제공
 - 파리 시내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인 오토리브(Autolib)의 대여료 할인

- 전기 차량이나 천연가스 차량에 주차비 무료 혜택 제공
- 사업 차량도 전기 차량이나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면 사업상 혜택 제공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진행
- 자전거(벨리브)와 전기 차량(오토리브, 유틸리브) 대여소를 파리 시내에 설치
 - 오토리브는 승객 중심인 반면, 유틸리브는 트렁크를 크게 만들어 짐을 싣기 좋게 만든 차량

<http://www.paris.fr/stoppol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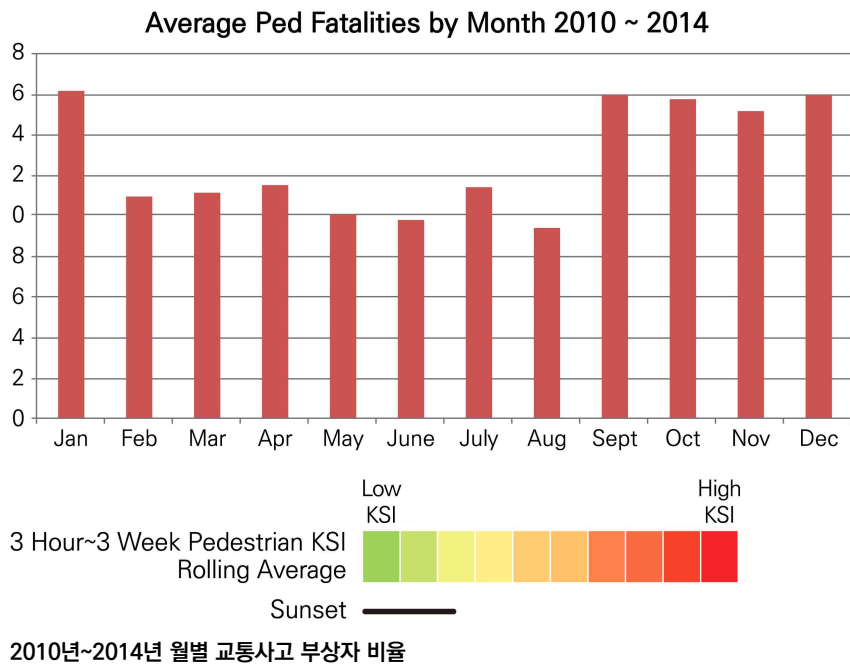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교통

연말 교통사고 줄이기 ‘일몰·어둠’ 계획 진행

미국 뉴욕시 / 도시교통

- 미국 뉴욕시는 연말 한 달간 교통사고 사망률이 연중 가장 높은 것에 주목하고,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몰과 어둠(Dusk and Darkness)’ 계획을 진행
- － 배경
 -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말 한 달 동안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평균 24명이며, 2015년 같은 기간에는 30명임.
 - 이 기간에는 해가 빨리 지고 거리가 어두워지며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함.
 - 뉴욕시 교통국이 ‘열 지도(Heat Map)’를 통해 저녁 시간대 조도와 교통사고 발생률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부터 한 달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내용

- 교통법규 시행 강화 및 경찰력 확보
 - 초저녁과 밤에 교통단속 강화
 - 사고가 잦은 곳에 경찰력 집중 배치
 - 휴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 도로 디자인 및 설계
 - 교차로 조명 개선, 건널목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램프 설치, 가로등의 전구를 LED로 교체
 - 뉴욕시 주요 도로에 자전거 차선 보호도로 29km 추가
- 뉴욕시 경찰과 교통국은 운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담은 수십만 장의 전단을 배포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을 라디오와 TV 광고, 버스광고,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실시
- 뉴욕시 경찰은 10월 말부터 한 달간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통단속을 엄격히 하고 5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

<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seasonal-fatalities-2016.pdf>

http://www.nytimes.com/2016/10/27/nyregion/new-york-commute-dusk-and-darkness-safety-campaign.html?_r=0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11-16/vision-zero-entering-busy-holiday-shopping-season-mayor-de-blasio-progress-dusk-/#/0>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중국 상하이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고용계약서 작성 등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법안 발표 2016.11.16
- 뉴욕시는 프리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함. 약 9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 프리랜서 근로자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급여 지급예정일 전에 고용주가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함. 앞으로 고용주와 프리랜서 근로자 간 갈등문제는 근로기준국이 중재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890-16/mayor-bill-de-blasio-signs-legislation-strengthening-protections-freelance-workers>

- 가정폭력대책위원회 조기 개입으로 가정폭력 살인 예방 2016.11.18
- 뉴욕시는 지난 25년 동안 살인사건이 82% 줄어들었지만, 가정폭력 살인사건은 줄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대책위원회를 설립함. 가정폭력위원회는 가정폭력에 초기 개입해 가정폭력과 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896-16/mayor-de-blasio-launches-domestic-violence-task-force-hold-abusers-accountable-provide>

-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절감 교육 프로그램 무료 제공 2016.11.29
- 뉴욕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를 20%까지 절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유지 보수 교육 프로그램과 난방, 전기와 물 시스템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13-16/mayor-de-blasio-new-energy-efficiency-program-apartment-buildings>

런던

- 교통신호 네트워크 안정화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2016.11.21
- 런던교통국은 런던시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개선하고, 통신기술을

활용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교통신호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고 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of-london-vows-to-tackle-londons-congestion>

- 공공기관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 발표해 남녀평등 임금 유도 2016.11.25
- 런던시 정규직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런던시장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로 함. 또한 런던시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하여 남녀평등 임금을 촉구함.

※ 성별에 따른 정규직 임금 격차(시간당): 런던시 4.6%, 런던교통국 19.2%, 런던 경찰국 11.6%, 런던 치안 범죄실 3.3%, 런던 소방서 0%, 올드오크 앤 파크로얄 개발공사 1.5%, 런던자산개발회사 35%, 런던 앤 파트너스 3%

※ 2015년 영국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9.4%, 런던시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11.9%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음.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ondon-gender-pay-gap-is-unacceptable>

- 4조 7천억 원 투자해 저렴주택 9만 호 건설 2016.11.29
- 런던시는 새로운 저렴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약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9만 호의 저렴주택을 건설하기로 함. 그리고 자치구별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해 저렴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sets-out-plans-to-deliver-90000-homes>

- 세계 최초로 수소버스 운행 2016.11.30
- 런던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디젤버스 구입을 줄이고 세계 최초로 수소버스를 구입, 운행하기로 함. 또한 오래된 디젤버스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줄여 도시 내 탄소를 줄이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sadiq-to-stop-buying-dirtiest-diesel-buses>

상 하 이

-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노후 건축물 보호 2016.11.02
- 상하이도시계획토지자원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노후 건축물을 보호하는 계획을

발표함. 2017년 6월까지 우쑹강과 황푸강의 수변 개발을 완료하고, 주거지역 내 공공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513.html>

- 연구소·병원·대학 연계해 고령자·고아 요양시설 오픈 2016.11.16
- 상하이시 내에 연구소, 병원, 대학 등이 연계하여 고령자와 고아를 위한 요양시설을 오픈함. 상하이시는 약 1,500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치료,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고령자의 80% 이상이 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음). 또한 상하이 교외지역에 상하이시 최초로 고아원을 세움.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646.html>

- 법원 판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법률자문 서비스 2016.11.19
- 상하이시 법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 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함.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상하이시 법원 판사가 직접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682.html>

- 대중교통 피크시간대 맞춤형 신규 버스노선 배정 2016.11.24
- 상하이시는 대중교통 피크시간대에 시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신규 버스노선을 배정하기로 함. 시민의 통근 편의를 위해 내달 중으로 10개의 버스노선을 신규로 배정할 예정임.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버스노선을 확장해 갈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716.html>

싱 가 포 르

- 노동자 직무 관련 기술교육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2016.11.04
- 싱가포르시는 변해가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교육을 시행하기로 함. 노동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싱가포르시 산업발전을 도모함.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skills-training-sector-to-be-upgraded-to-better-help-workers>

-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상·휴직기간 확대** 2016.11.11
- 싱가포르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육아휴직 대상과 휴직기간을 확대하기로 함. 미혼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8주에서 16주로 늘리고, 남성은 기존에 없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2주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channel-newsasia-extended-leave-benefits-for-dads-unwed-mums>

- **중소기업에 최대 2억 4천만 원 무담보 대출** 2016.11.12
-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함.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최대 약 2억 4천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기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smes-have-you-heard-the-good-news>

- **12월부터 도로 내 개인용 이동수단·접이식 자전거 운행 가능** 2016.11.25
- 싱가포르시는 12월부터 도로 내 개인용 이동수단과 접이식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도로 내에서 운행 가능한 접이식 자전거의 사이즈는 114cm×64cm×36cm이며 피크시간 외에 운행할 수 있음. 추후 개인용 이동수단은 120cm×70cm×40cm 사이즈 내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관련 규칙: <https://www.gov.sg/news/content/what-you-need-to-know-before-bringing-your-mobility-devices-on-public-transport>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foldable-bicycles-pmds-to-be-allowed-all-day-on-public-transport>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